

교권 보호 위한 법규 마련 절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이달 중 연구보고서 발간 20일 연차보고회에서 미래교육 관련 연구결과 발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12월 중 학생과 교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도내 초·중·고 교원 1,415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 응답자 87%가 '학생 인권 존중'이 실현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교사의 교육권(수업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4%가 학생 또는 학

부모로부터 침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교권 침해 발생 시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는 법규(응답자의 97.1%)와 기관(응답자의 94.1%)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권 침해 관련 조사와 구제 담당 기관(부서) 설치, 현장성 있는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보완,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례 연구 강화, 교육공동체 모

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교육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숙경 소장은 "이번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오는 20일 2022년 제11회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차보고회를 열어 전북 학생과 교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주현테크, 도교육청에 마스크 100만장 기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주현테크(주) (대표이사 이정안·사진)로부터 덴탈마스크 100만장을 기증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정안 대표는 지난달 도교육청을 방문, 1억원 상당의 덴탈마스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 학생들이 좋은 마스크를 쓰고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현테크(주)는 목화솜, 향균 필터 등 자체 기술로 기능성 마스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다.



/정은성 기자

“축산 분야 학문·산업발전 플랫폼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

전북대 장형관 교수, 가금학회 신임 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장형관 교수(수의대·사진)가 최근 대전 IBS과학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가금학회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학회장에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한국가금학회는 1973년 세계가금학회(WPSA) 한국지부(Korean Branch)의 창립을 계기로 1983년 12월 한국가금학회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 출범했다. 학회에서는 연 4회 학회지 발간과 산학협동 심포지움, 학술발표회 등 국·내외 활발한 학술활동으로 학문연구와 국내 가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장형관 신임 회장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질병관리청 감염병연구포럼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국내 유일의 가금학계 전문 연구기관인 전북대 부설 조류질병연구소 설립에 대내외적으로 수의학과 한국가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형관 신임 회장은 "최근 세계 경제 악화로 인한 글로벌 식량위기로 질병 안전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고 산업계 참여의 폭을 넓혀 한국가금학회가 축산분야의 학문과 산업발전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정은성 기자

“동문들의 마음 한데 모아”

전주교대 총동창 정기총회 이한홍 신임 회장 취임



전주교육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3일 이영노홀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교육대학교 제공)

전주교육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3일 이영노홀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임원 및 동문,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정기총회 자랑스러운 황학인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정기총회는 식순에 따라 축사,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 2022년 결산승인 및 2023년 예산안 인준, 회칙 개정, 임원 개신으로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2년 임기를 마친 문홍근 회장의 뒤를 이어 2023년부터 새롭게 동창회를 이끌 신임 회장으로 이한홍(교대16회) 동문이 추대됐다.

이날 박병준 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현석 기획처장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동문의 결속을 강화한 전임 회장과 앞으로 총동창회 활성화가 이끌어 갈 신임 회장 두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취임을 축하했다.

문홍근 이임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동창회 행사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지원해 준 동문 여러분이 있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한홍 신임 회장은 "2023년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무겁지만 이를 계기로 동문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앞으로 동창회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한홍 신임 회장은 "2023년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무겁지만 이를 계기로 동문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앞으로 동창회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고충 직업기술체험 한마당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중)가 주최한 직업기술체험 한마당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송북초등학교에서 유·초·중·고 교원 및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진로 연계 SW·AI 체험교육, 메타버스 활용 교육, 코딩 및 SW교육, 사물인터넷(IoT)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전북고충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능적 정보기술 구현, 인강·AI 협업, 첨단 과학정보기술 융합교육 등 교육가족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래기술 체험으로 진로 탐색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미래 교육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는 행사"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A교사는 "미래교육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메타버스 활용 교육 체험을 통해 자신감도 불고 학생들과도 다소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B학생(초3)은 "지문인식도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닌 것 같다"며 "학교 사물함 잠금장치로 활용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기중 회장은 "이번 행사에는 연령 대별로 최적화 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초청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체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 나서

도교육청, 오늘부터 이틀간 단계적 이행 지원·추진계획 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7일 이틀간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 및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97개 일반고 교감과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진행, 6일에는 전주, 익산, 정읍지역 48개교 144명이, 7일에는 군산 등 11개 시·군 49개교 147명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사례,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사례,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고,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사업별 단계적 이행 지원 추진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지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자율적 교육과정 모형 개발 및 운영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눠 학교에 지원한다.

특히 2023년에는 도내 모든 일반고(97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로 운영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운영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명확 지원에 나선 방침이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정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3학년도 단위학교 고교학점제 단계적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한다"면서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도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실크로드 한·중 청년 학자 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우석대·중 태원사범대 공동주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중국 태원사범대학이 공동 주최한 '제1회 실크로드 한·중 청년 학자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양교에 재학 중인 석·박사 대학원생 100여 명이 참여해 '실크로드 문화 예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1부는 전홍철 공자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최호석(공자아카데미) 연구원이 '사군모 도상의 방향을, 위진광 태원사범대 교수가 중국 동북 신수승배를, 장진진 태원사범대 대학원생이 '실크로드 문물의 문화 콘텐츠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부는 창사오전 태원사범대 교수의 진행으로 말라드 마하디아트 태원사범대 대학원생이 16~20세기 중국과 페르시아의 관계, 자오자아루(글로벌의식경영학과 박사과정 3차수) 대학원생이 '한대 화상성 중 서왕모'를, 쟈웨이샤오(글로벌의식경영학과 박사과정 4차수) 대학원생이 '당대 문화 마크로컬 변화의 권초론'을 발표했다.

3부는 웨이엔웨이 태원사범대 교수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중국 태원사범대학이 공동 주최한 제1회 실크로드 한·중 청년 학자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의 사회로 장평즈 태원사범대 대학원생이 '한중 리얼리즘 영화 비교'를, 지루이샤 태원사범대 대학원생이 '한중 전통악기 해금의 비교' 등 10여 편의 연구가 발표됐다.

남천현 총장은 "지난 5월 양교는 국제 실크로드문화예술연구소를 공동 설립해 국내외 학술대회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할 기로 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그 결실 중 하나로 앞으로도 양교의 학술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사오리 태원사범대학 부총장은 "미래의 한·중 학계를 이끌 젊은 석·박사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가 큰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양교는 내년 6월 한국·중국·영국·미국·일본·이란·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의 석학들이 참여하는 '제1회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를 산시성 태원(太原)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학생들, 재능 나눔

전주비전대학교 신재생에너지와 학생들은 지난 10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지역민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을 실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체험으로 배우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주제를 소개, 3D모델링과 3D프린터 이해하기, 스크래치 코딩을 통한 프로그램 작성 기법, 메타버스 기반 태양광 발전소 VR 체험 등 실제생활에서 유용한 첨단 지식 제공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일 대학 본관 접견실에서 ㈜이노콘과 드론 스포츠동아리 후원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론 스포츠동아리 후원 '맞손'

전주대-이노콘,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일 대학 본관 접견실에서 ㈜이노콘과 '드론 스포츠동아리 후원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 및 업무 협약식에는 박진배(주)이노콘 대표, 박진배 전주대 총장, 주송 IINC 30 사업담당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드론 산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배 총장은 "㈜이노콘과의 드론 스포츠동아리 후원과 협약을 통해 드론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찬 대표는 "전주대 졸업생으로서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하던 중 모교에 드론 스포츠동아리가 있는 것을 알고 드론 스포츠동아리의 성장과, 후배들이 드론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드론 스포츠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7월 15~16일에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 2022 국토부 장관배 전국 드론 축구대회 챔피언십 초대 대회에서 2위와 3위를 하고, 또 11월 2~3일 열린 '제3회 한국대학드론축구대회'에서 2등과 4등, 11월 4일 진행된 '제2회 드론클래스 챔피언십'에서 1등과 2등을 차지하는 등 대학부 드론 스포츠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정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13번째 테크노마켓' 성료

학과별 추천 30개 작품 전시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최근 13번째 테크노마켓 행사를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김강주 교수)와 현장실습지원센터(센터장 김성영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했다.

테크노마켓 행사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산업체와 지역 사회의 문제해결에 적용해보는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우수한 작품을 전시하여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 산업체 관계자, 동료 학생들의 평가를 받는 행사이다.

군산대학교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매년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양 센터에서 총 451개팀을 지원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각 학과에서 추천을 받은 30개 작품이 전시됐다.

/군산=김관근 기자